



<http://www.gjiwill.or.kr/>

흥사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입니다.

I Will 센터는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인터넷과다사용 및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I Will 센터 2015년 8월 뉴스레터

광진 I Will 센터 소식 / 8월 활동



1. 광진중 CSI(Control Smartphone Internet) 프로그램

8월 26일(수), 27일(목) 광진중학교에서 CSI(Control Smartphone Interne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무더웠던 여름방학을 떨쳐버리고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역동적인 '딱지치기 놀이' 대안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조를 나누어 개인 딱지왕을 선발하고, 팀 대항전으로 각 반의 최종 딱지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광진중 2학년 6개 반 18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2. 담장넘어 함께 꿈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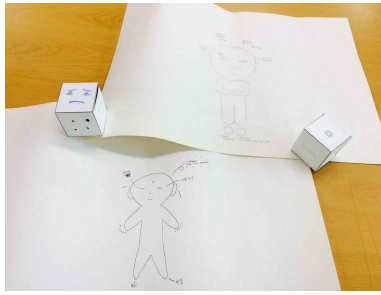
8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안학교인 단재학교에서 '담장넘어 꿈틀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 날 활동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일정을 논의 후 확정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담장넘어 꿈틀이' 프로그램은 금년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12시에 단재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 초등(고학년) 집단상담

8월 6일(목)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광진청소년수련관 1층 해봄센터에서 초등 고학년 집단상담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였다. 사회성 향상을 주제로 한 이번 집단상담에서는 경매활동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총 6회기의 집단상담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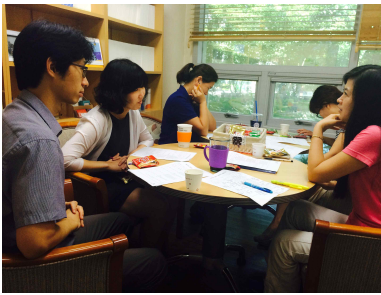
4. 중등 집단상담

8월 22일, 29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광진청소년수련관 1층 해봄센터에서 사춘기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체성 탐색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탐색해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 청소년 서포터즈

8월 28일(금)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광진청소년수련관 1층 해봄센터에서 광진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건전사용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날은 다같이 점심을 먹고 2학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 외래상담원&동반자&특별치료 사례회의

8월 4일(화)에 외래상담원, 동반자 회의를 진행하였고, 18일(화)에는 동반자 8월 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부모-자녀 상담이 병행되는 사례와 부모 상담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8월 11일(화)에는 특별치료 사례회의가 진행되었다.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내담자가 원하는 매체들을 조사하고, 최근 종결된 사례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7. 멘토 사례회의

8월 26일(수) 광진 아이빌센터 멘토링 사업 진행에 따른 8월 멘토 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멘토링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시간약속 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멘티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새로 배정받을 사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8. 포레상담자

8월 22일(토) 광진 아이빌센터 2회 포레상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말 전달하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말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쉽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포레상담자로서의 대화의 자세, 공감 연습 등을 통해 대화의 기본자세에 대해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9. 유·아동 예방교육

8월 13일(목)부터 31일(월)까지 유·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동화 속 스마트나라'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동화로 알아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사용 증상,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0·포퀴즈와 인터넷 지킴이 다짐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관내 유치원 8개 기관 총 426명의 유·아동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10. 대상별(청소년) 예방교육

8월 19일(수)부터 31일(월)까지 초등 26학급,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에서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초등은 6회기 학급 집단 프로그램, 중·고등은 방송 및 학년 전체 집단 강의 형태의 특강교육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8월 26일(수) 명일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급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나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나의 약속작성' 등의 조별작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확인하고 예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1. 예방강사 워크숍

8월 25일(화) 14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3층 성문화교육장에서 예방강사 16명이 참석하여 특강 프로그램 연구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강 진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법, 대상에 따른 강의안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2. 교원정보화연수

8월 4일(화)~6일(수) 3일에 걸쳐 관내 학교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원 47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보화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1일차 '게임제작의 원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뇌에 대한 이해', 2일차 '청소년 상담평가 및 상담전략', '청소년과 사이버범죄', 3일차 '청소년 집단상담 개입전략'의 5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진 I Will 센터 9월 예정 활동

- 광진중학교 인터넷중독예방교육 CSI(Control Smartphone Internet) 프로그램
- 청소년 집단상담(중등)
- 포래상담자
- 광진중학교 청소년 서포터즈
- 담장넘어 꿈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대상별 예방교육(유·아동/초등/중고등)

- 예방강사 보수교육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특별치료(놀이/미술)
- 전수조사 사후조치 개인상담
- 상담사례토의모임(개인상담)
- 외래상담원, 찾아가는 동반자 사례회의
- 멘토 사례회의
- 부모교육
- 제14회 서울시 연합 아웃리치